

# 장애인과 일터

Vol.338

2023 JUNE  
KEAD Monthly Magazine

## 다정다감, 배려의 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JUNE Vol.338

### 다정다감, 배려의 힘

어느덧, 싱그러운 초여름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기분 좋은 온도. 6월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지기도 하지요. 여유로운 계절의 기운 속에 가까운 이들과 평소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정다감한 말과 소소한 배려로, 잔잔한 웃음꽃을 자주 피우는 향기로운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다정다감, 배려의 힘
- 04 **생각 더하기**  
배려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어야 합니다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떤 역할을 할까?
- 10 **일터 트렌드**  
향기디자이너



##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정보접근성 서비스가 당연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다채로운 가구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 20 **우리는 KEAD**  
“사람을 향한 보조공학기기 연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 24 **KEAD 포커스**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알아보기
- 26 **세계는 지금**  
네덜란드, 장애인 일자리 방안을 창출하다



## 공감, 함께하다

- 30 **트렌드 보고서**  
온고지신의 끝판왕, ‘할매니얼’
- 32 **배리어프리 여행**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이곳, 창경궁
- 34 **고민톡 상담톡**  
“오후 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36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7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지적장애인 편
- 39 **KEAD 뉴스**
- 40 **KEAD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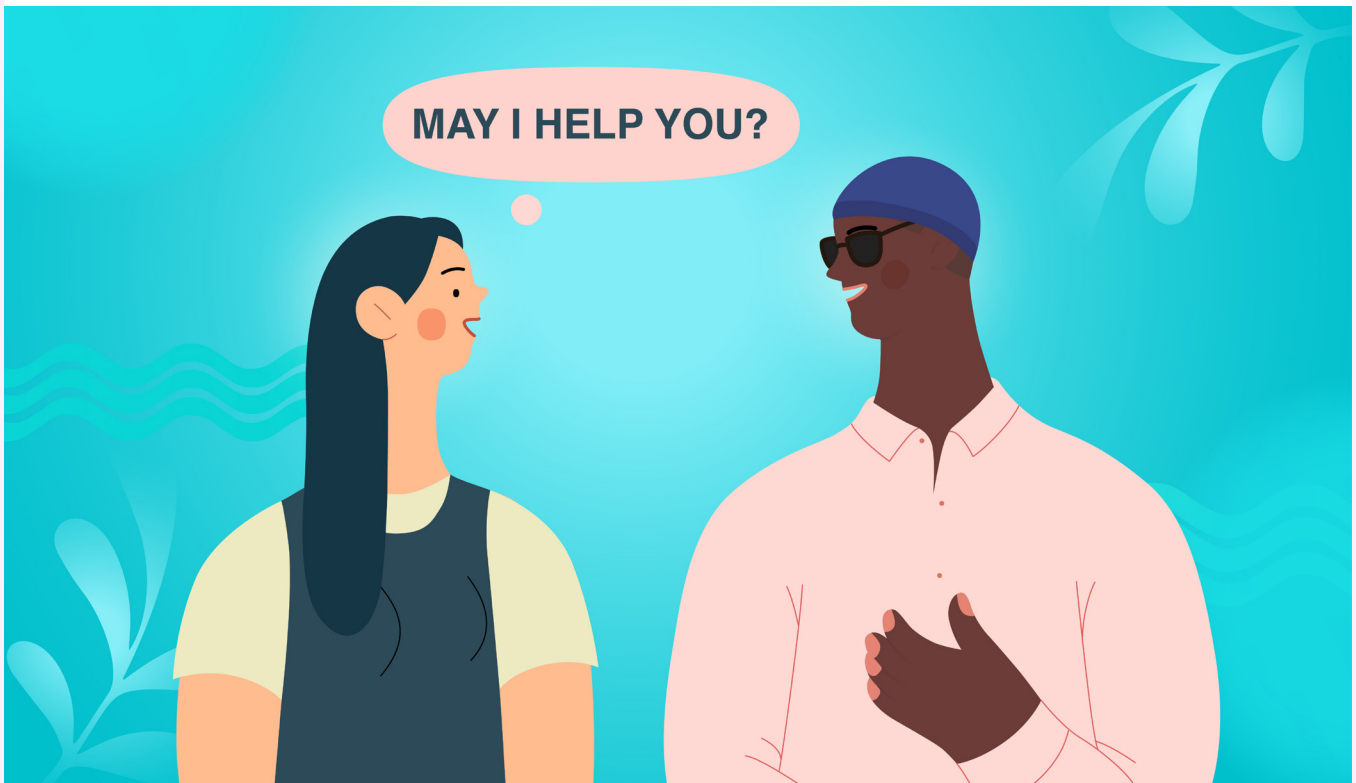
## 다정다감, 배려의 힘

### 진정한 배려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배려(配慮)의 뜻을 풀이하면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는 마음'입니다. 영어단어 중에서도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 역시 사려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 등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일화를 들어볼까요.

2011년 UN 행사에 참석한 김연아 선수가 팝의 전설로 불리는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에게 보인 행동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스티비 원더가 발언을 해야 할 때 그의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 때 김연아 선수는 스티비 원더에게 묻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사소해 보이는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그녀의 세심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부로 동정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도움일 수 있으니까요. 김연아 선수는 그런 마음마저 내다보고 도움을 주어도 될지 먼저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리는 마음이지요. 누구라도 그러한 따뜻한 배려를 받고 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려 깊음과 다정다감한 배려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온기를 품고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 배려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어야 합니다

##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

글 류승연(도서 '배려의 말들' 저자)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서 비장애인의 배려를 받는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배려의 순간이 매 순간 절실했고 어쩌다 마주하는 사람들의 친절이 마냥 고마웠다. 이제 아들은 아빠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되었다. 성인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이다. 그러자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인다. 더 이상 배려를 받기만 하는 장애인으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긴 것이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임이 파탄 난 이유

몇 년 전 일이다. 발달장애인의 멘토 역할을 하는 비장애인 그룹을 만나러 지방 도시에 갔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출산한 발달장애인 여성들을 후원하는 비장애인 여성 모임에 초대받았다. 해당 지역 사회복지



단체에서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이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한다. 살림이나 육아 노하우, 경제적 지원 등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친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1순위로 나왔다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비장애인 멘토 그룹. 장애 여성과 비장애인 여성이 짝을 이뤄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했다. 친구처럼, 언니처럼, 엄마처럼 처음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배려’가 없어서였다. 장애 여성들이 비장애인 여성들을 배려하지 못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단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자명했다. 당사자들이 평생을 ‘사람’이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그들을 ‘사람’이 아닌 ‘장애인’으로 대해왔기 때문이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장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돈은 언니가 내.”, “나는 지금 심심해. 내가 심심하면 새벽 3시라도 그냥 막 전화할래.”

### 배려받되 배려도 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장애인이지않아’가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정체성이 된 채 성인으로 자란, 자신을 향한 비장애인의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큰 깨달음이 왔다. 이전까진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아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으니 비장애인인 당신들이 아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그런데 아니었다. 그렇게 모두의 배려를 받기만 하며 자란 아들은 ‘장애인 특권’을 휘두르는 안하무인으로 자라게 될 터였다. 그래서 안 된다. 나는 아들을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 배려받되 배려도 할 줄 아는,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 그래야만 먼 훗날 내가 옆에 없는 세상에서도 아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다. 빈자리가 없어 서서 가고 있는데 아들이 앉고 싶었던지 바로 앞에 앉은 청년에게 손을 내밀며 “응응~ 응응~”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발달장애인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앉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선해 보이는 청년이 “여기에 앉으세요”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그 청년이 마저 일어나기 전에 얼른 만류했다. “아유~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녀석도 서서 가는 걸 배워야 해요.” 아들은 투정 부리듯 조금 징징댔지만 이내 손잡이를 이리 잡고 저리 잡으며 목적지까지 잘 갔다.

그래. 이렇게 배워야 한다. 배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반복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언젠간 노인과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인으로도 자랄 수 있겠지. 배려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도 특훈, 내일도 특훈이다.

#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함께해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은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든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 길을 물어보는 이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꼭 거창한 실천을 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타인을 위해 마음 한편을 내어줄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배려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장재훈 과장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지원부

“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본부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지원부에서 일반직 4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보니 지난 3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참여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약 열흘 동안 100여 명의 선수단과 함께 했는데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직원이 기술위원들과 선수들을 인솔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의 걱정과 달리 모두가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많은 양의 짐을 옮기는 등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과 기술위원은 경기 전 선수들이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기 중에는 원활한 소통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우리나라 선수단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연패’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배웠지요. 저는 앞으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직장 동료, 가족 등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재경 과장**  
고용개발원 운영관리부

“

누군가의 배려는  
항상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고용개발원 운영관리부에서 연구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쓰던 시절, 매주 금요일에 퇴근하고 본가에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캐리어, 쇼핑백, 가방 등 많은 짐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느 날, 앞에 앉아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쇼핑백 끈 때문에 제 팔이 빨개졌다며 대신 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캐리어도 붙잡아주셨어요. 공공시설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배려는 ‘온기’인 것 같아요. 배려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배려의 감사를 표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던 온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도 ‘사려 깊으면서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머물거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배려를 건네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 인재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인재개발부로 발령받아 직원 복무 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사무실이다 보니, 업무 중에 동료나 선배님들에게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재개발부 노사협력팀에서 급여 관련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버거웠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이 감사하게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팀장님은 제가 질문을 하면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고 함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님도 잘 모르는 부분을 먼저 가르쳐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에 더욱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배려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배려받으면 저 역시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올해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 선배님들에게 배려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혜 대리**  
기획조정실 인재개발부

“

배려하는 마음은  
긍정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옵니다

##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안내견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안내견’은 특별훈련을 거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여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몸체에 매달은 ‘유도 고리(Harness: 하네스)’를 잡고 보행하는데, 이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소시켜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부



### 1993년, 우리나라 안내견 양성 사업 시작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는 84개의 안내견학교가 있다. 약 20만 마리의 안내견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됐다. 올해 기준 총 270여 마리가 안내견 준비 훈련을 마쳤고, 71여 마리의 안내견이 시각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내견 후보 강아지는 생후 2개월이 되면 ‘퍼피 워커(Puppy Walker: 안내견이 1살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조기 훈련의 목적은 안내견

후보 강아지에게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안내견 후보 강아지의 '사회화'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성을 길러주면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생겨 훗날 안내견이 되어 시각장애인과의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1살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떠나 안내견 훈련센터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만나 약 8년간의 안내견 생활을 끝으로 노화가 시작되면 은퇴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안내견 인식 목줄(안내견 관련 정보 기재), 안내견 조끼(훈련·활동 중 노란색)를 착용한 안내견의 유도 고리(Harness: 하네스)를 잡고 보행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세상과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로서 장애인이 안전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리트리버(Retriever)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당연히 지능이 높고, 인상이 좋아야 하며, 체격과 체력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공격성이 낮아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좋은 완벽에 가까운 견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셰퍼드'가 안내견으로 발탁되며 암컷이 대부분이다. 특히 리트리버는 셰퍼드보다 더 순한 외모로 인기가 많다.

리트리버가 셰퍼드보다 안내견으로 발탁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안내견과 일반적인 반려견이 갖는 몇 가지 차이점으로 알 수 있다. 먼저 안내견에게는 가슴줄에 조끼만 입히고 입마개는 씌우지 않는다. 이는 주인이 위험한 장소로 향하고 있을 때 주인을 붙잡거나, 타인이 주인에게 위협을 가하려 할 때 안내견이 사람을 힘으로 압도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안내견은 일반적인 반려견이 갈 수 없는 곳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안내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덩치 큰 개'이다. 이는 타인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공포심을 덜 줄 수 있는 호감형의 리트리버가 체격인 셈이다.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날카로운 인상의 셰퍼드보다 인상이 부드러운 리트리버종을 안내견으로 선호하는 이유다.

### 안내견에 대한 오해는 그만! 우리 모두 에티켓을 지켜요

<p>안내견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p>	<p>안내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말아 주세요</p>	<p>안내견에게 음식을 주지 마세요</p>	<p>시각장애인의 허락 없이 안내견 사진을 찍지 말아 주세요</p>	<p>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신호를 지켜주세요</p>
<p>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p>	<p>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눈으로만 예뻐주세요.</p>	<p>시각장애인을 돕는 임무에 방해되거나 안내견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p>	<p>안내견의 업무와 시각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p>	<p>안내견은 주변 사람이 건너지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과 이동하므로 무단횡단은 위험해요.</p>



## 향기디자이너

### 맞춤형 화장품 업계의 진출을 목표로하다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비대면이던 일상이 회복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그중 방향용 제품류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향수의 인기가 가장 높다. 이에 공단에서는 ‘향기디자이너’라는 직군을 개발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향기를 배합하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향기디자이너 직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 2021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직업훈련 욕구 발견

MZ세대는 소비자 중 핵심 소비 계층으로 자신의 취향에 꼭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품에 호감을 보이며 경험을 중시하기에 새로운 제품에도 거부감이 덜하다. 이러한 성향은 화장품 시장에도 반영되면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제작 방식도 그에 맞춰 변해가고 있다. 국내의 맞춤형 화장품은 물론 향수 등의 방향용 제품류의 생산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업계의 호황에 힘입어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나섰다. 먼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들여다보면 여성의 고용률은 22.7%로 남성 고용률(43.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체 인구 고용률에서도 여성이 50.8%로 남성(69.9)에 비해 낮다. 한국개발연구원('21)의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면서비스업(교육, 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공단은 맞춤형 화장품 업계에서 고용률이 낮은 여성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군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간 공단을 통해 취업한 시각장애인 직종 1위는 보건·의료분야의 안마사가 가장 많다. 취업한 전체 장애인의 64.6%가 시각장애인 취업 직종인 안마사에 편중된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 욕구를 살펴보면 전체의 24.5%가 제시된 분야가 아닌 ‘이외의 서비스 분야’를 1순위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단은 여성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욕구를 알게 되었고, 화장품 업계로의 직군 개발에 적극 나섰다.



## 여성 시각장애인이 더 선호하는 직군 개발

화장품산업은 일상생활 속 직접 써보고 경험하는 중시하므로 관련 업계에 여성들의 진출이 많은 편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화장품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56.7%)이 남성(43.3%)에 비해 높으며 신규 일자리에서도 여성 종사자 비율(72.3%)이 남성보다 많다. 더불어, 여러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후각 등 타 감각이 발달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타 감각 발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공단은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테스트 중 ‘시각장애인 향수 제작 전시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현재까지 조향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향기디자이너 직무의 희망을 한번 더 확인하고 고용모델을 추진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춘 ‘조제관리사(조향 관련 국가자격증)’가 매장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 조제관리사와 ‘향기심리사’ 등의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신설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맞춤형 화장품 일종인 향기 제품을 제작하는 ‘향기디자이너’가 전문 인력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읽을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시각장애인이 향기디자이너로 기업 안에서 하나의 직무로 인식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범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 향기디자이너, 향후 진출 분야 확대 가능성

공단은 조향산업에 대한 전망과 실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주의 면담하고, 업계의 산업 전망과 시범사업 진행 시의 유의사항 등의 의견을 나눴다. 실제 사업 담당자들은 향기 제작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조향체험을 해보는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이수했다. 이를 통해 조향사업 추진에 필요한 체험 공간 및 재료, 수업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후 향기디자이너 직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며, 향을 직접 배합하고 체험하도록 실습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론교육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해당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했고, 실습교육은 맞춤형 화장품 제조와 ‘향기심리사2급’ 교육과정 등으로 짰다. 또한, 전문강사를 통해 천연 향유 특성 및 조향, 향을 통한 심리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는 모두 4명으로 여성 시각장애인이었다. 사업 담당자들은 조향체험의 환경조성이 가능한 기업에 이들의 일자리를 제안했다. 사내카페, 헬스키퍼실 등 휴게공간에 향기 제품을 비치하거나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있는 기업 등에 이들을 추천했다. 이중 향기디자이너 직무로 장애인고용 확대에 관심을 보인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 직무 실현 가능 방안에 대한 고용컨설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체 소재지의 향기 산업 동향 등 시장조사를 했는데, 고용으로는 아쉽게도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료생 전원이 민간 자격증인 ‘향기심리사 2급’을 획득하여 향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동료 상담, 향기심리 강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학교,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보접근성이 옵션이 아닌, 당연한 서비스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형섭 주식회사 엔비전스 정보접근성사업팀(IA사업팀) 팀장

회사에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정보접근성사업팀을 만든 사람이 있다. 14년간 근속하며 사원으로 시작한 팀의 팀장이 된 사람, 바로 엔비전스의 김형섭 팀장이다. 정보접근성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오늘도 치열히 공부하는 그를 만났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김형섭 (주)엔비전스 정보접근성사업팀(IA사업팀) 팀장

###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보접근성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에게도,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컨설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사에게도 저마다의 의미로 기록될 수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회사의 이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 정보접근성 분야가 생소한 분들에게 김형섭 팀장님의 업무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접근성’은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장애의 유무, 나이의 적고 많음의 차이에 구애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화면당 접근성에 대한 오류나 문제가 10개 정도가 발견되었어요. 이럴 때 사용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동반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보고하는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KWCAG) 및 국제 접근성 지침(WCAG) 기준에 맞는 전문적인 개선 전략을 각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보접근성 분야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아도 컴퓨터나 모바일을 숙명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화면의 전반적인 텍스트를 탐색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정보접근성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엔비전스에 입사 후 정보접근성 파트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어필했습니다. 회사 설립 3년 후부터 정보접근성사업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섭 팀장이 진지한 모습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 팀이 신설된 게 2012년, 지금은 팀장님이 되셨어요. 그때와 지금의 정보접근성 환경의 차이는 어떤가요? 많이 개선되었을까요?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포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포함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접근성 환경이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인식 또한 많이 열렸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코드가 30가지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재료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에 따라 저희가 발맞춰 가야 할 길이 멀지만,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신다고 들었어요.

AAA(All About Accessibility) 접근성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세미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서비스 출시 전의 기획 단계부터 정보접근성 파트가 녹여지면 여러 오류가 나타나지 않거나 개선될 여지가 많거든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보접근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필요성을 전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정보접근성사업팀에 다른 시각장애인분들도 웹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는 점과 정보접근성에 대한 애정이 높다는 거예요. 어쩌면 각자의 삶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전맹이고, 다른 두 팀원분은 저시력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몰랐던 다양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서 좋습니다.

## 본인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껏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능력껏 하는 일이 제한 받지 않을 때 존중 받고 있다고 느껴요. 엔비전스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건 제 능력을 알아주고, 제 비전을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과는 저를 믿어준 회사에 대한 보답이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고요. 이 모든 게 거듭 순환되고 결과로 나타났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구직, 취업을 앞둔 장애인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저도 같은 장애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과 맞닿은 회사를 꼭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당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성 파트를 개선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이 오늘날 저의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신다면 자신의 가치와 맞닿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요즘엔 각 회사에 QA(Quality Assurance)팀, 서비스의 기능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QA팀에 정보접근성 파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장애인 QA를 전담하는 인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정보접근성을 끼워맞추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출시될 때부터 정보접근성을 녹여내어 그야말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어렵고 이상적인 꿈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김형섭 팀장



동료들과 업무 상의를 하고 있는 김형섭 팀장



# “다채로운 가구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존하는, 마켓비

2만여 가지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마켓비에는 가구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시니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다름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다양성의 시너지가 움트고 비로소 싹을 틔우는 곳, 경기도 파주의 마켓비 본사를 찾아가 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환하게 웃고 있는 마켓비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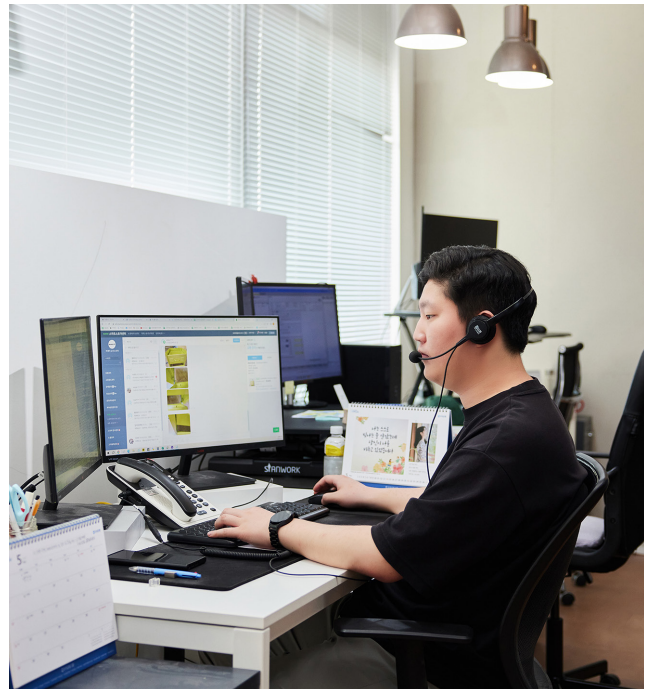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존중하는 회사

가구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홈퍼니싱 전문 업체 마켓비. 2006년에 설립된 이래 가구, 조명, 생활·리빙, 소품 등 2만여 가지가 넘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판매 중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문화를 소구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가구들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켓비의 가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위 ‘침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웬만한 집엔 마켓비의 가구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다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차분함, 발랄함, 모던함까지 아우르는 제품들로 폭넓은 세대층의 눈과 귀, 호기심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스며들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가격경쟁력이다. 생산 과정에서 조립 단계를 생략하고, 가구 완성의 재미를 소비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면서 가격 단가는 낮추는 방식을 취한다. 자연스럽게 조립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고 고객 응대 파트와 영업 지원 업무의 중요도는 높아지는 편이다.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두 팀에 장애인 근로자가 각각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각자 어떤 역량을 발휘하며 일하고 있을까?



한중윤 주임과 김예별 사원이 업무 상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한중윤 씨

## 마켓비가 장애인 근로자를 뽑은 이유

마켓비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감사함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국제구호 협회와 지역 유소년 축구팀 지원과 더불어 지역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해 자사 제품을 기증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매년 지속했던 사회공헌 활동들을 점검하다가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후원과 응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인 만큼, 다양성을 지지하는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20년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결정했고, 현재 3명의 근로자가 마켓비의 정직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마케팅팀 김예별 사원은 처음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기 전, 내부에서 고민했던 고려 사항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특수 직무를 마련하느냐, 기존 직무에 맞는 채용을 결정하느냐가 당시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단순 업무 위주의 새로운 직무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 성장과 더불어 결속감, 소속감을 고려하며 기존 직무에 맞는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대표님과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들은 기술지원팀에서 1명, 전략기획팀에서 2명이 근무 중이다. 기술지원팀에서는 홈페이지, 유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고객 상담과 더불어 상품 파손, 교환, 환불 등 A/S와 관련된 상담까지 이뤄진다. 전략기획팀에서는 마켓비의 대리점, 위탁 대리점, 취급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무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 분류된 부서의 일들인 만큼 장애인 근로자들은 정확한 매뉴얼 숙지를 비롯해 사내 프로그램 및 각종 업무 관련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 소통의 장이자 역량을 펼치는 장

경증 지체장애의 기술지원팀 한종윤 주임은 입사 3년 차로 2만여 가지의 제품의 조립법과 제품별 택배 방식, 평균 배송일자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한다. 고객이 문의한 가구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층의 쇼룸을 오고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문의는 바로 가구 조립 파트다. 마켓비 가구들은 고객이 원한다면 조립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상담을 위해서 가구의 형태와 움직임의 원리, 세부 부품에 대한 파악에 공을 들인다. 상품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는 상세페이지를 뜯어보는 일부터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응답하는 일까지 고객상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한종윤 주임. 하루에 45~50건의 고객 문의 전화를 소화하며 고객들이 마켓비의 가구와 소품에 전하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제가 가진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감정적으로 상기되었던 고객님이 상담이 끝날 즈음엔 만족감과 더불어 ‘친절한 설명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면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은 회사와 함께 도약하는 기회이자 기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마켓비에는 입사 전 대표와 1:1 면담을 갖는 시간이 있다. 미래의 임직원이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마주하고 대화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하다.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는 올해 또 하나의 ‘도약’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리점 100호점 돌파와 더불어 해외 유통사 입점 등을 통한 30개국 수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내일을 마켓비에서 기대해 봐도 좋을 이유다.

### 미니 인터뷰



#### 기술지원팀 한종운 주임(지체장애)

“전문가로 대우해주는 회사라서  
스스로 자긍심을 느낍니다.”

마켓비는 저의 첫 직장입니다. 3년간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소속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거든요. 고객 응대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가까이 계신 팀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역으로 들어주면서 조언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잊을 만큼 전문가로 대우해 주시고, 늘 편안하게 대해주는 동료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 마케팅팀 김예별 사원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마케팅팀에 있다 보면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기술지원팀과 논의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종운 주임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임님 덕분에 회사의 분위기도 점점 ‘무작정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선후배, 동료’라는 인식이 꽃피고, 긴밀한 신뢰 관계를 통해 협업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식이 무르익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마켓비에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사람을 향한 보조공학기기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 보조공학센터 유동현, 용석길 전임연구원

보조공학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작하는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하다. 면접도 같은 조로 봤고, 입사 동기에다가 종교도 같아서 공단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 의지하는 사이. 반지 공방에서 마주 보고 앉아 은반지를 자르고 갈고 닦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 받다가도 보조공학기기 연구원답게 반지의 디테일을 수정할 때의 눈빛은 사뭇 달라졌다. 이들이 사람을 향한 기술을 위해 공단에 몸담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은반지보다 더 반짝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은반지를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용석길, 유동현 전임연구원(왼쪽부터)

## 오늘은 날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은반지 공방에 나타난 두 사람의 손가락엔 액세서리가 없었다. “아무래도 뭔가를 꾸준히 만들고 고안하는 입장이다 보니, 액세서리와는 거리가 멀었죠.” 머쓱하게 웃는 두 사람 앞에 여러 가지 반지 샘플이 놓였다. 굵기도, 디자인도, 각인도 모두 다른 반지들을 들여다보다 사선으로 뚫린 반지와 띄어쓰기 부호처럼 윗단이 ‘V’ 모양으로 커팅된 반지 디자인을 선택했다. 손가락 굵기를 잰 후, 선생님이 재단해 온 얇은 은색바를 쥐고 각자 다듬질용 손공구인 줄을 잡고 접합부를 매끄럽게 깎아나가기 시작했다. 보조공학센터에 있다 보면 만들고 고안할 일이 많아 손으로 하는 작업이 익숙하지 않냐고 질문을 던졌다.

“보조공학기기는 상용과 맞춤으로 구분되거든요. 공단에서 지원하는 상용품목이 있는데 장애의 종류와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다 보니 맞춤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맞춤을 설계하고 만드는 담당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샘플 작업으로 푹푹딱딱하는 일이 조금씩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왔는데,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은반지를 만드는 게 낫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유동현 연구원의 반지는 바를 구부려서 접합부를 은으로 땀했고, 용석길 연구원의 반지는 동그랗게 구부린 상태에서 붙이지 않고 사선의 여백을 살리는 것으로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동그란 반지의 형태가 되자 손가락에 대보기도 하고 끼워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환봉에 넣어서 손가락 굵기에 맞도록 망치질을 해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늘어난다며 ‘은’의 성질에 대해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보조공학기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했다.

## 면접 동기에서 마음 잘 맞는 동료로

보조공학센터 내에서 유동현 연구원은 보조공학기기의 설계 맞춤을 담당하고, 용석길 연구원은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는 다르지만 졸업한 과도 기계공학과로 같고, 입사 면접도 같은 조로 보고, 입사일도 같은 너무 소중한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종교마저도 같다. ‘사람을 향한 기술에 매진하고 싶다’는 입사 동기도 비슷한 걸 보면 서로 가끔 소름이 돋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찾게 된다고. 용석길 연구원이 최근에 출장을 갔다가 발견한 사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머리를 모으기도 했다. “휠체어를 타고 도로 정화 업무를 하고 계신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보게 됐어요. 업무 수행이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보조공학기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유동현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청소흡입기기를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연히 다시 그 길을 지나다가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왜 연락을 안 주셨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보조공학센터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를 발견하면 온 관심이 거기에 쏠린다고 했다. 이유는 두 사람이 늘 집중하고 있는 ‘사용자의 편리성’ 때문이다. 사용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분석하는 게 일이다 보니 은반지 하나를 만들 때도 세심함이 엿보였다. 사포봉을 끼워 돌리는 핸드피스를 잡으면서도 여러 개의 느낌표를 주고받은 두 사람. 작은 반지 하나에도 여러 원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재미로 이 시간을 가득 채운다.



유동현 전임연구원이 은색바를 지한봉에 넣어 망치질 하는 모습



용석길 전임연구원이 다듬질용 손공구 줄을 잡고 은색바를 다듬는 모습

### 은반지처럼 반짝이는 사람을 향한 기술자들

지난 5월 말에 열린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고, 보조공학센터 또한 참석하는 가장 큰 행사이자 두 사람이 공단에 입사해 처음 치르는 행사이기도 했다. 다양한 공부도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관련해서 인상적인 보조공학기기가 뭔지를 물어보자 용석길 연구원은 기립형 전동휠체어인 감마스탠딩을, 유동현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스마트 유틸리티인 리보3을 꼽았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분들이 일하실 때 본인의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느낄 만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장애를 지울 수 없겠지만 기기를 사용하는 순간은 그 어떤 불편함 없이 본래의 역량을 백프로 발휘할 수 있도록요.” 실리콘 헤드를 핸드피스에 장착하고 반지에 대보자 거친 표면이 정리되며 서서히 광이 난다. 점차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이걸 정말 저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닐까요?” 하며 농담을 하는 여유를 가져보기도 한다. 서로 사이좋게 왼쪽 검지에 낀 반지를 들여다보며 “이건 커플 반지 아니고 우정 반지다!”라고 시종일관 선을 긋는 두 사람. 늘 지니고 다닐 반지이기도 각인을 한참을 고민하다 종교적인 신념을 담은 문구로 함께 정했다.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건 결국 두 사람이 다른 듯 닮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거친 손 위에 반짝이는 반지가 마치 사람을 향한 기술을 더 든든히 하라는 각오처럼 느껴지는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잘 스며들었을 테니.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 반지를 들여다보며 입사 6개월 차의 패기와 장애인 근로자를 향한 두 사람의 차분한 열정으로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





사선, V 모양으로 완성된 두 사람의 우정 반지

체험 소감 한마디



“연단의 과정을 거쳐 반짝임이 완성된다는 걸 다시금 배웠습니다.”

용석길 전임연구원

‘반복해서 익숙하게 한다’, ‘쇠붙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의 ‘연단’이라는 단어가 내내 떠올랐습니다. 반지도, 저희 작업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보조공학센터가 담당하는 일이 기기를 만들 때는 차가운 이성이, 사용자와 대면할 때는 뜨거운 감성이 공존해야 하는 일임을 상기했습니다. 우리 보조공학센터가 연단의 과정을 담당할 테니,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손에 맞는 반지처럼 여러분에게 맞는 기기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현 전임연구원

오늘 반지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작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때론 사용자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해주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보완하고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친절히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를 뛰어넘는 시간을 선사하는 거니까,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시상

2023. 5. 17.(수) 7층 회의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알아보기 장애인고용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매년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 KEAD 포커스에서는 지난 4월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의 입상작을 소개하고, 6월에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4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은 포스터 디자인, 영상, 스토리텔링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선정한다. 이중 지난 4월 포스터 디자인, 영상 분야의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접수된 114점의 응모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14점이 뽑혔다. 스토리텔링 분야는 공단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포스터 디자인 및 영상 분야 입상작

먼저 지난 4월 실시한 공모전 입상작을 소개한다. 포스터 디자인 분야에서는 장성화 씨의 ‘능력의 잠금해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 선입견을 없애고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역할에 착안하여 콘셉트화했다”라고 작품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또한, “포스터의 키비주얼은 재능 많은 장애인을 잠금화면의 아이콘 형태로 형상화해 다양한 직업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손가락으로 핸드폰 잠금화면을 해제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해 편견을 없애는 장면이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시각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제하면 그들의 색다른 능력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영상 분야 최우수작은 조준화, 박동희, 김태완, 이호경 씨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가치를 위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비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팀 리더인 조준화 씨는 “사용자 테스트(User Testing)를 뜻하는 단어 ‘UT’를 활용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술(Universal Technology)과 편견 없는 내일(Unbiased Tomorrow)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가능성을 믿고 사업주와 장애인이 각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It’s Ur Turn Now!)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이 작품은 링크 <https://youtu.be/EEZBnUKTyHQ>에서 볼 수 있다.

각 분야의 최우수작으로 입상한 수상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추후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네덜란드, 장애인 일자리 방안을 창출하다 농촌형 치유 농장, 케어팜(CareFarm)

세계 각국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정신적·인지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많다. 네덜란드는 세계 제일의 농업 강국의 면모를 살려 농촌형 치유 마을, 이른바 ‘케어팜(CareFarm)’이란 이름의 농업 기반의 치유형 마을이 1,000여 개나 있다. 어떤 유형의 마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 장애인의 자립성을 돕는 농촌형 치유마을

네덜란드의 농촌형 치유마을 중 대표적인 모델 하나가 얼마 전 CNN(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에 방영된 ‘호그백(Hogeweyk)’ 마을이다. 2009년부터 마을 조성을 시작한 간호사 ‘이본 반 아메롱겐(Yvonne van Amerongen)’은 치매 노인을 의료적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치매의 상태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공간을 조성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네덜란드 정부가 지원하는 ‘케어팜(CareFarm, 치유농장)’과 ‘그린케어(GreenCare)’에서 찾았다고 했다. 치매 노인에게 호그백 마을이 있다면 중증장애인에게는 ‘스코털발트(Scorlwald)’ 마을이 있다. 호그백 마을과 같이 케어팜 형태를 근간으로 농업 관련 직무뿐 아니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여 다양한 일거리가 주어진다든 점에서 케어팜 플러스 일자리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에는 100여 명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농장일 뿐 아니라 악기 공방, 제과점, 레스토랑에서도 근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마을에서는 누구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이 보호받고 격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에는 케어팜 중 중증장애인에 대해 더욱 특화된 마을은 스코털발트 마을 말고도 현재 20여 개가 더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 케어팜 성장의 밑거름, ‘그린케어 정책’

장애인을 위한 스코털발트 마을이든, 치매 노인을 위한 호그백 마을이든 모두 네덜란드의 케어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1995년부터 50여 개에서 2015년에는 1,100개로 확대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학대받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케어팜이 늘어나게 된 것은 네덜란드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그린케어 정책’ 때문이다.

그린케어 정책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회복시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기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의학적,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적 농촌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곧 케어팜이다.

케어팜은 사회적돌봄(Care)과 농업생산활동(Farm)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 농가나 민간 조직, 의료, 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그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케어팜은 종래의 농업 생산활동에만 집중되었던 것에서 건강 사회 재활치료, 교육적 서비스를 파생시켜 농업의 다기능(Multi-Functional Agriculture)을 실현하면서 네덜란드 농촌에 새로운 수익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코럴발트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 / 사진. 스킨발트(Scorlwald)

### 장애인고용의 핵심, '케어팜'의 성공 배경

네덜란드 장애인고용의 핵심에서 있는 케어팜의 성공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네덜란드 특유의 농업 공동체로서의 오래된 역사이다. 초기 케어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농장 운영만으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웠던 농장주들은 보조적인 소득 수단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치유농업, 치유농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농장주 부인들의 육아에 대한 경험과 간호 경력이 뒷받침되었다. 네덜란드는 어원상 저지대(Nether+Land)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토의 30%가 해수면 아래 있어 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척박한 불모지 땅이다. 이같은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지학적 공동체, 기독교적 공동체였고 그 힘으로 중세부터 간척과 개간을 통해 농업 강국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농장주의 부인은 현대판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가의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생존기 이후, 치유농장과 치유농업이라는 네덜란드 케어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원초적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농장주는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아니다. 특산품을 가공하는 2차 산업과 치유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 망라하는 6차 산업의 선구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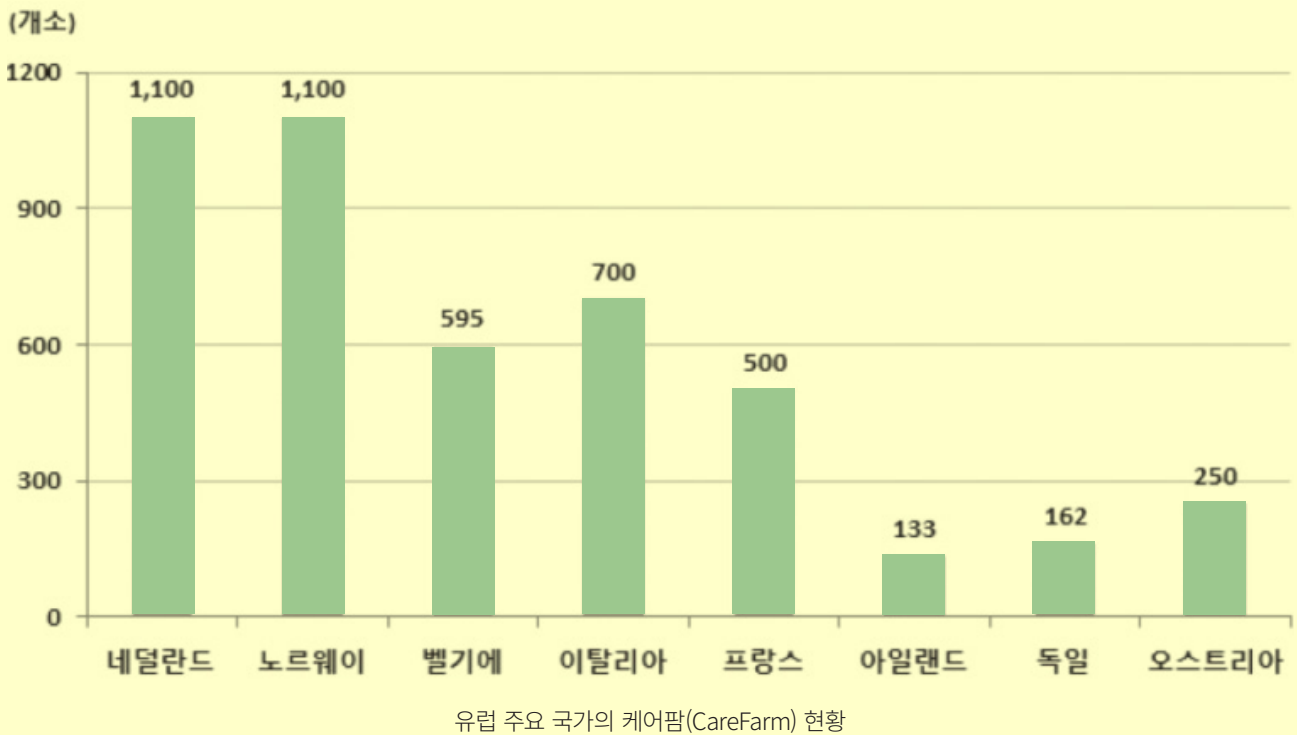
### 네덜란드 정부, 케어팜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정부 역시 새로운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6차 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내걸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농업 생산보다 케어서비스에 더 집중하는 농장 운영 사례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다른 하나는 다법제적 농업, 복지, 경제부처 간의 협업이다. 오랜 전통의 치유농장을 케어팜으로 급속히 확대한 것은 2015년 사회복지법(WMO :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개정 이후다. 지방자치단체가 케어팜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네덜란드 전역에 케어팜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WLZ : Wet langdurige zorg), 청소년보호법(JW : Jeugdwet), 건강보호법(ZVW : Zorgverzekeringswet)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증 치매, 중증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청년, 만성질환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치 장애인을 위한 케어팜인 듯 오해할 정도로 그린케어와 케어팜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의 유연한 협력체계가 돋보인다. 산업은 농업부처, 장애인 등 대상은 복지부처, 재정은 경제부처로 나뉘어 있지만 그린케어, 케어팜을 위한 세부처의 협력은 마치 한 몸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6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했고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나 장애인은 그 중심에 서 있게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생산·판매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지원으로 보완하여 치유농업, 치유농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힘이나 네덜란드 특유의 유연한 상술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놀라울 뿐이다.

우리나라도 한창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투 중이지만 농수산부,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처가 따로따로 더딘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덜란드의 부처간 협업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남다른 부처간의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람 중심의 일 상생활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유연한 제도적 협업이 절실하다.

## 온고지신의 끝판왕, ‘할매니얼’ 돌고 돌아 정겹고 푸근한 할머니의 품으로

어린 시절, 한 번쯤은 하고 많은 아이스크림 중 팔 아이스크림을, 하고 많은 과자 중 약과를, 하고 많은 달달한 떡을 놔두고 흑임자 떡을 사 온 할머니를 원망하며 눈물을 터뜨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명절에 찾아온 손주에게 할머니가 내줄법한 위 음식들의 위상이 바뀌었다. 시겟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이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MZ세대들은 할머니 스타일의 옛날 간식에 열광 중이다.

글 편집부



파리바게뜨 스타일로 재해석한 약과타르트 / 사진, 파리바게뜨

### ‘할매니얼’ 그 폭풍의 눈, 약과의 변신

가벼운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들러간 편의점에서 감자칩 대신 약과를 고른다. 집들이 방문 선물을 사기 위해 들러간 백화점에서 케이크 대신 고급 약과를 고른다. 편의점에서 백화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에 가장 잘 띄는 매대에서 약과를 보았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니다.

편의점 CU가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인기 카페인 ‘이웃집 통통이’와 콜라보해 출시한 ‘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는 초도 물량 10만 개를 일주일 안에 완판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CJ올리브영이 발 빠르게 출시한 ‘별꽃약과’

는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를 돌파했다. SPC 삼립은 프리미엄 전통 디저트 브랜드 ‘대한과자점’을 론칭했다. 신세계푸드와 현대백화점 역시 약과 관련 제품을 론칭하거나,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 이러한 약과의 유행은 단순히 약과의 맛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뒤에는 레트로 열풍을 타고 MZ세대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극한 ‘할매니얼’이라는 유행이 있기 때문이다.

첫눈에 보기에 심상찮은 할매니얼은 할머니를 뜻하는 ‘할매’와 20~30대 젊은이를 통칭하는 ‘밀레니얼’의 합성어다. 즉, 할머니 취향을 선호하는 일군의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약과를 중심으로 대두된 할매니얼의 열기가 심상찮음을 재빠르게 읽고, 식품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할머니 취향’의 식재료를 활용했다. 흑임자, 단호박, 인절미, 보리, 숙 등 듣기만 해도 정겹고 포근한 할머니 품이 떠오르는 그런 식재료가 젊은 층의 혀바닥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인절미는 빙수, 커피, 토스트 등과 결합해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널리 퍼뜨리고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달달함을 지닌 단호박은 설기, 떡, 라테, 컵케이크 등 디저트의 형태로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최신 음식 유행이 곧장 반영되는 카페 음식 시장에서 할매니얼이 젊은 세대에게 먹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 각박한 사회를 향한 카운터 펀치

지금은 단순히 식품계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할매니얼은 사실 이전부터 거세계 불어온 뉴트로 열풍과 궤를 같이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 ‘뉴트로(Newtro)’는 그 당시를 경험한 적 없는 젊은 세대가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젊은 세대는 과거를 겪은 적이 없기에 그리움에서 기인하는 기성세대의 향수와 달리 그 자체를 새로운 문화로 즐긴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할머니 스타일을 추종하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뜻으로 할매니얼과 거의 유사한 ‘그랜니 시크(Granny Chic: 세련된 할머니)’, ‘그랜드밀레니얼(Grandmillennial)’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물론 서구권의 할매니얼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패션과 인테리어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뉴트로라는 같은 동력을 공유하고 있다.

할매니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느끼기에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탓이 크다.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회는 멈추지 않고 변한다. 동시에 사회면을 채우는 다양한 사건들은 젊은 세대가 마주할 변화무쌍한 미래의 전망이 불안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련된 것, 자극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포근한 할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할매니얼 콘텐츠가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품어주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군불처럼 타오르는 작금의 인기를 보았을 때, 사회가 몰아세우는 속도와 효율의 반대편에 서서 여유와 정을 어필하는 할매니얼의 인기는 금방 식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이곳, 창경궁 역사 공부와 산책을 모두 즐기다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시대 궁궐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경복궁을 메인 궁으로, 창덕궁을 보조 궁으로 사용하는 양궐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왕실 식구가 늘어나면서 창덕궁만으로는 생활공간이 비좁았다. 그 때문에 성종 때 왕실의 웃어른인 정희왕후, 인순왕후, 소혜왕후 등 세 분의 대비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창덕궁 이웃에 창경궁 공간을 마련했다. 그래서일까. 이곳은 장엄하기보다는 아름다움이 더 돋보인다.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서울대병원에서 바라본 창경궁의 모습

### 창경궁 역사 속으로

창경궁은 왕실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발전해 온 궁궐이다. 이곳에는 왕들의 지극한 효심과 사랑, 왕과 세자의 애증, 왕비와 후궁 간의 갈등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많다. 그중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 등의 배경이 바로 창경궁이다. 그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기에 좋은 여행지다. 이곳은 일부 코스를 제외하고는 꽤 평평한 흙길로 이뤄져 있고 전각 입구에도 경사도가 잘 관리되어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특히 휠체어 길 및 음성해설 QR이 표시되어 있어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 아름다운 모습이 엿보이는 궁궐 내각

창경궁은 메인 건물인 정전이 있는 외각보다 생활공간인 내각이 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의 내각은 주로 대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답답한 느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궁궐에서 본 여성들의 공간은 폐쇄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창경궁의 내각은 개방적이어서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중 통명전 앞에는 특별한 모형이 있다. 바로 통명전을 축소한 주물로 뜬 모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모형을 만져봄으로써 건물의 외형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통명전 전각 위에 오를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되어 있어 여러 각도에서 내각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내각들이 모인 곳을 지나면 양쪽으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흙길이 춘당지라는 연못까지 이어진다. 연못 주변으로 아름드리나무들이 있어 마치 도시를 떠나 숲에 온 느낌을 준다. 실제로 어른 팔만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 흥미로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춘당지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연못이고 주변에 숲도 울창해서 새들의 보금자리 역할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이국적 풍경이 느껴지는 대온실

창경궁 대온실은 1909년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뼈대는 철재와 목재로 이뤄져 있고 외피는 온통 유리로 덮여있어 흡사 유럽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는 창경원(일제강점기에 창경궁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불렀던 이름)으로 훼손되었던 창경궁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야생화, 자생식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한번 쯤 둘러보기에 좋은 곳이다.

- 홈페이지 :** <http://cgg.cha.go.kr/>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 관람시간 :** 09:00 - 21:00(20:00 매표 및 입장 마감)
- \* 휴궁일 :** 매주 월요일 휴무
- \* 관람요금 :** 내국인 : 만 25세 - 만 64세(1,000원), 단체(10인 이상, 800원)  
외국인 : 만 19세 - 만 64세(1,000원), 단체(10인 이상, 800원)
- \* 무료입장(외국인) :** 만 18세 이하 (23. 4. 1.부터 시행)  
만 65세 이상 (14. 10. 1.부터 시행)  
한복 착용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알쏭달쏭 직장생활

### “오후 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6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  
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mailto:jangteo@kead.or.kr) 독자 의견에 남기기







**Q.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요양원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6월 1일부터 13시까지 출근해 오후 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더위에 약해 오전 근무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 시간을 통보받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상담자님의 말씀처럼 근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요청 시 근무 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근로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담자님과 사업체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여 기존 내용대로 오전 근무로 재변경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근로계약서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작년 여름, 사업체에서 조경을 위해 많은 양의 나무를 구매하여 제가 병원의 조경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나무에 물을 주고 돌보는 업무를 몇 달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조경업무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무더운 날씨에 조경업무를 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져 원래 복용하던 정신과 약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전 상사분이 저의 부서로 오게 되었고, 소통이 잘되지 않아 불안감만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더운 여름에 몇 달간 외부에서 일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새로 온 상사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더욱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자님처럼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 동료가 내담자를 배려하고 싶어도 어떤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담자님과 가깝게 지내는 비장애인 동료에게 본인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더운 날에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상담자님이 비장애인 동료가 힘들어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주는 등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Q. 계약직으로 간호 업무 보조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 지급한 실내화가 발에 맞지 않아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그냥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중요한 검체를 들고 급하게 이동하다가 큰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가를 내고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 치료가 길어지면서 회사에 공상처리와 병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개인 과실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치료비와 추가 병가를 받아 완치되어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인데,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나요?**

**A.** 상담자님의 과실이 아닌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공상처리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을 대비하여 근무지(병원)가 아닌 타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병가로 회사와 협의할 필요 없이 산재 신청하고 회복 후 복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복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mailto: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청보리 #바람

청보리가 만개한 제주도는 푸른 녹색으로 물들어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그 아름다운 바람과 함께하면 더욱 배가 됩니다. 청보리와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는 치열한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언제나 그렇듯, 이런 순간을 여행자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선사해줍니다.

김○우



#양양 #잔비치 #힐링

5월의 화창한 주말, 계획도 없이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분주하고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주변이 고요하고 탁 트인 공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힐링’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곤 해요. 한 참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잠시 ‘쉼표’의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신○식 과장, 공단 고용컨설팅부



#을왕리 #카페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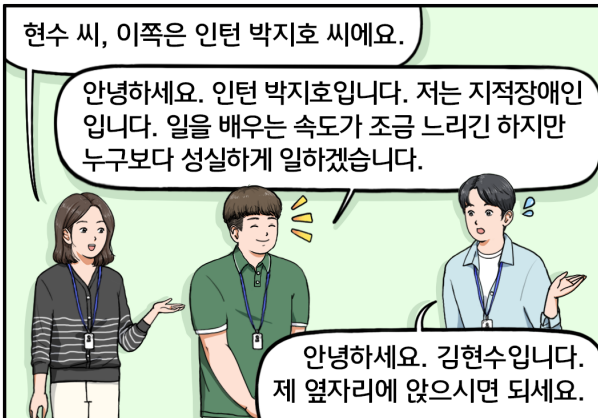
날씨가 좋아서 바다를 보러 을왕리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잠시 쉬어갈 겸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카페는 예전에 교회였던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줬습니다. 드라이브로 기분 전환도 하고 카페에서 마음의 안정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 여러분에게도 을왕리 드라이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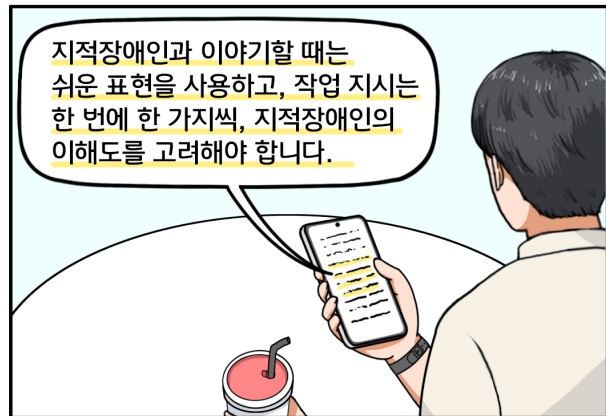
#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 지적장애인 편

그림 권도연







# KEAD 뉴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2종 실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8차조사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나라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주입, 실업 등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 내용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의 밑거름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목적	우리나라 장애인 경제활동 규모 및 실업 파악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6조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 *지역,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업 분야 등에 따라 차등 배정
조사방법	가정방문 면담조사(재택방 PC를 활용한 조사)
조사기간	상반기 : 2023년 5월 ~ 7월 하반기 : 2023년 10월 ~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연아)은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통계조사 2종(‘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을 5월부터 실시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는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

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지난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상반기 신입직원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3년 상반기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2023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25명의 신규 임용직원이 참석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신입직원으로서의 공직자세 확립과 기초지식 함양을 통해 현업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실·국·별 사업 담당자를 교육 강사로 선정해 신입직원들의 공단 고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신입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

빙하여 ‘조직과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강점 활용을 통한 자기개발계획’ 등의 교육을 하여 이들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가한 교사직 신입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단의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 4년을 기다린 ‘따뜻한 기술’,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3년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5월 26일, 27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1층 제1전시관)에서 개최됐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이다.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만 2천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했고 시각, 지체, 발달 등 개인별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체험관 등 총 150개 부스로 꾸며졌으며 국내외 47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 등 체험거리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 영화 토크쇼’,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배범준의 ‘축하공연’,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장애대학생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국내외 보조공학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3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됐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형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인 만큼 많은 수요자의 참여가 이뤄질지 바란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 KEAD SNS 하이라이트

##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blog.naver.com/kead1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 제과제빵 직무 훈련교육 실시

대전하면 생각나는 빵집, 성심당에서 제과제빵 직무 훈련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aha\_kead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휠체어 배드민턴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휠체어 배드민턴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복 JOB GO]**  
**업종별 장애인고용사례 ‘제조업’**

제조업은 사업시설관리업과 함께 많은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구두 제작, 반도체 생산 등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장애인식 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